

# 광양시,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정책 집중 편성

##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10년간 대출이자 매월 이차보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10호 공급 지역 신규 청년 유입 활성화 목표

광양시가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운영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광양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기초지자

체 중 광양시가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청년 주거 지원 대표 공약으로 19세부터 39세까지 광양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임대)에 따른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 구입의 경우 대출금 1억원 이내, 전세(임대)의 경우 6600만원 이내에서 연 최대 3%까지 최장 10년간 대출이자를 매월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광양시는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연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대출이자 지원 기간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청년들의 접근성 및 편의 도모를 위해 협약 은행을 2개소(농협·신한은행)로 확대했으며 방문 접수 외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도록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

지난 6월 27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 범위가 기존보다 더욱 넓어지게 됐다. 광양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을 현행 19~39세에서 18~45세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그동안 주택 주거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제한한 것을 다자녀 가정(2명 이상)의 경우 주택 주거 전용면적 제한을

없애 더 많은 청년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광양 학사(서울 공공기숙사) 운영, 청년전세 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일반기업 근로자, 청년 창업자 등 광양시에 거주 중인 18~45세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눈여겨볼 점이다.

광양시는 신혼부부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에게 2026년까지 저렴한 광양형 행복타운 공공임대주택(110호), 광양형 창업타운 공공임대주택(150호)을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주영 광양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지역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이다"며 "청년들의 주거안정화로 새로운 청년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백운제 테마공원 물 체험장 개장

### 내달 18일까지 운영

광양시는 백운제 테마공원 물 체험장(봉강면 성불로 213 일원)을 개장했다고 23일 밝혔다.

물 체험장 개장식에는 정인화 광양시장과 최대원 시의회 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장식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물 체험장 운영 기간은 23일부터 8월18일까지 27일간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시설 정비에 휴장한다.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이 2주 늘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45분 운영 후 15분 휴식을 취하는 방식이다.

점심 및 휴식 시간은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다.

입장료는 관내 거주 2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 1000원, 13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 2000원이다.

관외 거주자의 경우 어린이 2000원, 청소년 및 성인 4000원이다. 이용 시 신분증, 수영모, 수영복, 샌들(아쿠아신발) 착용이 필수이며 유아는 방수 기저귀를 착용해야 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술함 없이 운영하겠다"며 "즐길 거리와 볼거리를 앞으로 계속 확충해 연중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만들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1075필지 내달 12일까지

광양시는 오는 8월1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된 1075필지다. 광양시는 그동안 공부 및 현장 조사를 병행해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다.

산정이 완료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오는 8월19일부터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검증이 완료된 지가는 오는 9월2일부터 23일까지 시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

.realtypice.kr), 시청 민원지적과 등을 이용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광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열람 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식을 이용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되는 경우 토지의 특성을 재검토하고 인근 지가와 균형을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 및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의 가격이 조정 또는 유지되며 의견 제출인은 처리 결과를 개별 통보받게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전기차, 계속 주차 등 '충전 방해하면 과태료' 부과

광양시는 전기차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광양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100세대 이상 92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 현수막을 제작해 배부하고 이외에 정기적인 안내방송, 전광판 홍보 등의 방법으로 충전방해행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전기차 충전방해행위는 일반차량이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경우, 전기차가 기준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하는 경우, 충

전구역 및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고의 훼손의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과 대상이며 나머지 방해행위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광양시는 지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 후 주민신고제로 총 1148건·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용길 환경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확충했다"며 "전기차 관련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전방해행위 근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 정인화 시장, 향만물류고 학부모들과 취업 활로 모색

### 감동데이 시민소통 시간

지난 19일 정인화 광양시장이 시민접견실에서 7월 중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고충 및 애로사항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광양 감동데이'는 시민들이 시정발전 방안,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광양시장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번 7월 광양 감동데이에는 향만물류고 학부모 4명이 방문해 정인화 광양시장과 향만물류고 안정적 취업 활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학부모들은 향만물류고 학생들이 고졸 지역인재 특별채용 전형 등을 통해 포스코 등 관내 대기업, 공사, 공공기관 등에 일정 비율 취업할 수 있는 활로를 구축해 달라고 건의사항을 이야기했다.

이에 정인화 시장은 최근 장인화 포스



정인화 광양시장이 지난 19일 시민접견실에서 '광양 감동데이'를 열고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광양시 제공

코 회장에 포스코 취업아카데미 수료자의 가정 반영을 요청한 바 있고 포스코의 포항제철고 특별채용에 대한 채용기준과 특전제공 여부 등을 파악 및 분석하고 적절한 논리를 개발해 향만물류고 학생의 특별채용을 부탁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인화 시장은 "시정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라며 "향만물류

고 학생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취업 활로 구축을 위해 포스코, 전남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매월 '광양 감동데이'를 열어 시민 누구나 시장(부시장, 국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광양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민 100여명이 지난 20일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광양시는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된 석등 상감 접시 등을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에 전시할 예정이다.

광양시 제공

##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체험 프로그램 성료

광양시가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에 대한 염원을 담은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광양시 사리실 예술촌에서 진행된 '도자기로 재현하는 쌍사자 석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광양시민 100여 명은 쌍사자 석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특강을 듣고 쌍사자 석등을 도자기로 재현했다. 가족 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은 석등 조형 형태를 빚어보고 석등 상감 접시를 만들어보며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체감했다.

광양시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쌍사자 석등 상감 접시를 국가등록문화유산 광양 서울대학교 남부연습관 관사에서 전

시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쌍사자 석등 관련 학술세미나, 역사 탐방을 통한 우리 문화유산 바로 알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명덕 문화예술과장은 "광양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쌍사자 석등 제자리 찾기 사업은 먼저 쌍사자 석등을 시민에게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